

국토부 고위정책과정 한옥교육 '인기'

전북대 4년제 실시... 교육 평가 전국 1위 올라 고창 지역 머물며 숙식... 지역민 소득 큰 도움

한옥 교육의 메카인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옥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대는 올해로 4년제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실시하는 고위직정책과정(한옥)을 유치, 중앙부처와 전국에서 선발된 고위직 공무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1주일 동안 한옥 이론과 실습 등 다양한 교육을 펼쳤다.

이들은 한옥 실습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고창캠퍼스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인간문화재 최기영 대목장 특강을 비롯해 한옥체험, 실습, 한옥 마을 답사 등을 경험했다.

이번 교육이 특별한 것은 국토교통

부의 고위직 정책과정이 제주도에 있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수행되는 게 전북대가 유일하다는 점이다. 지난 8월 전북대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MOU를 맺었고, 지난해 고창캠퍼스의 한옥과정이 정부 공무원 교육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오르며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개설한 50여 개의 과정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교육으로 손꼽히기도 했다.

특히 이 교육이 고창 지역에서 4년째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고위직 공무원들은 교육 기간 동안 고창캠퍼스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지역 농촌 마을 부녀회에서 식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에도 긍정적인



전북대학교가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 역시 우리 지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엄마가 해주는 집밥'의 콘셉트로 지역에서 나는 음식재료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제공, 큰 호응을 얻으며 고창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유치해 주관하고 있는 남해경 전북대 교수(한옥기술종합선

터지는) "우수 한옥기술을 바탕으로 이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한옥교육 및 워크숍을 유치해 전북이 우리나라 한옥의 최고 고창이라는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들이 외국인들에게 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상반기 교장공모제 신청 접수

초·중·고 51개교 대상 내달 6일까지 1차 공고 진행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초·중·고 51개교를 대상으로 2019년 교장공모제(내부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9년 3월 1일자로 교장의 결원이 발생하는 도내 초등 35곳, 중등 9곳, 고등 7곳 등 51개 학교 전체를 결원 예정 학교로 안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한 희망학교 중 공모학교를 지정하고 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접수할 예정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교장공모제 신청 접수를 해야한다.

교장공모제 추진일정은 지정학교를 중심으로 1차 공고가 11월 27일~12월 6일까지 진행되며 지원자가 2명 미만일 경우 재공고가 12월 7~10일까지 이뤄진다. 재공고 지원자가 없으면 지정을 철회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신청 자격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원, 또는 양 자격을 합

하여 1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자(교장자격 미소지자)로 임기는 4년이며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제한된다.

공모교장 심사위원회는 접수가 종료된 후 구성되며 심사 시작 당일 명단을 공개한다. 심사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위촉하고 지원자의 진족 관계에 있는 자, 지원자의 은사나 제자, 제자의 학부모, 공모학교 동문일 경우 학교 동문 출신, 기타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촉을 제한한다.

지원자가 지원서, 자기소개서, 학교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해당학교 및 교육지원

청은 접수 마감일 다음날 익명으로 지원자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관련 서류 표절 검증 및 추천 부적격 여부를 검증한다.

1차 심사는 지정학교에서 12월 12~14일이며 2차 심사는 학교추천자를 대상으로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에서 12월 18~21일 중 실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공모제의 취지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있다"며 "단위학교 자율운영을 위한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대학교 중등학교의 협력은 지역사회 인재 양성하는 중요한 계기"

원광대, 12개교와 '봉황 교육실습 전 프로그램' 협약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익산지역 12개교 교장들을 초청해 '봉황 예비교사 교육실습 전 프로그램'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은 김도중 총장과 사범대학 학과장 및 교육대학원 전공주임 교수가 함께한 가운데 지난 9일 원광대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운영될 교육실습 전 프로그램은 학과별로 재학생들이 11월 중 실습학교를 방문해 학교장과 연구부장, 담당교사들로부터 각각 '교육자의 사랑과 교사의 품성', '교육과정 및 연간 실습교육과정', '교과 교육 실습 안내' 등에 대한 특강을 듣고 학교 시설 견학 등을 하게

된다. 현재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면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교육봉사를 포함해 교육실습 4화점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광대는 예비교사들의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실습 직전 학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실습 전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도중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광대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하는 준비에 앞장서면서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선정돼 대학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고 강조하고, "대학교 중등학교의 협력은 지역사회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에 참여한 12개 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실습교를 대표하여 원광고등학교 권기오 교장은 "교원양성기관 교육실습 전 프로그램은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습교와 대학이 협력해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협약식에 이어 실습교 교장과 교수들 간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으며, 전북맹아학교 정문수 교장대행은 "이번 협약이 특수학교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돼 실습교로서 의미가 큰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원광대 박은숙 교육대학원장 겸 사범대학장은 "바쁜 학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실습교 교장 선생님들과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2개 학과 전공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교육자로서 품성의 중요성을 더욱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1개 학과로 구성된 원광대 사범대학은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교육 전문직을 배출하고, 12개 전공으로 구성된 교육대학원은 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양성과정은 학부와 동일계 전공에 입학할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10개 전공으로 구성돼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도교육청,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 신청 접수

재직 20년 이상 교원 대상 내달 3~7일까지 5일간 접수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9년 2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19년 2월 28일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예산 및 교원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규모를 결정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1월 중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를 확인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학교가 최근 대학 이카데미홀에서 군산대 산학협력단과 프라임사업단 주관으로 '제1회 군산대 총장배 전국 드론경진대회'를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드론'

군산대 전국 드론경진대회 100개팀 300여명 참가

군산대학교는 최근 대학 이카데미홀에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프라임사업단 주관으로 '제1회 군산대학교 총장배 전국 드론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드론산업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초·중·고 등, 예비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대회는 드론축구, 드론배틀, 드론융합 레이싱 분야 등 3개 부분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경진대회에는 100개팀 300여명이 참가했다.

10일 진행된 드론축구는 드론축구전용경기장에서 팀대항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드론배틀은 상대팀의 드론을 추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드론융합레이싱은 각종 장애물을 통과하며 경로를 주행하여 목적지에 가장 빨리 도착한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되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경기 결과 드론 축구에서는 ▲초등부에서는 김현복(정읍동성초), 김도현·안준성(정읍동성초) 팀이 1위에 올랐고 ▲중고등부에서는 양서진·김현학(정읍호남중), 송우진·이동훈(정읍배영중) 팀이 1위를 차지했다.

드론레이싱부분은 ▲초등부 1위에 정읍도화초등학교 김경훈이 ▲중고등부에서는 여수공업고등학교 정호현이 1위에 올랐다. 한편 드론배틀에서는 ▲초등부의 경우 군산푸른솔초등학교의 조무경이 ▲중고등부에서는 여수공업고등학교 송승현이 1위에 올랐다.

이 대회는 청소년에게 진로 등 자기설계에 대한 정보와 동기를 부여하고 진로체험 활동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